
서사론의 인지론적 전환 - 방법적 개념 계열의 재편을 위한 시론

장일구 (전남대학교, 교수)

〈목 차〉

- I. 단서들
- II. 인지 플러스 서사, 개념 계열의 사상
- III. 인지 플러스 서사, 방법적 변환의 설계
- IV. 인지 플러스 서사, 실험 모델의 청사진
- V. 지평

국문초록

이 글은 인간의 인지 활동에서 서사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과 같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인지 과학과 뇌신경 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사 이론의 방법적 개념 계열을 재편하려는 시론이다. 인지의 도식·서고·모듈·공정 등 개념항을 서사의 제재에서 담론에 이르는 개념항에 대응시켜 사상 함수를 설정하는 것이 그 구심이다. 나아가 서사적 인지 코그, 마음읽기의 서사 공정, 신경-서사 요법 등과 같은 방법을 설계하는 한편, 'AI 해석 공동체'와 같은 실험적 모델의 청사진을 제시함 직하다. 이로써 서사 이론의 외연을 확장하고, 서사적 소통 과정을 과학적 시야에서 분석할 방법론적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며, AI를 활용하거나 AI 발전에 소용될 진전된 서사 이론의 지평을 열고자 한다.

키워드 : 인지 서사론, 인지 과학, 뇌신경 과학, 생성형 인공지능, 개념 사상, 인지 도식, 인지 서고, 인지 모듈, 인지 공정, 사회적 인지, 해석 공동체

I. 단서들

이 글의 단서는 인간의 인지 활동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영역이 상당하며 인지적 창발에 문학이 기여하는 바가 결정적인 경우가 많다는 데서 비롯한다. 사회적 인지(social cognition)에 관여된 현상이 나타나고 확산하는 과정에서 문학에 관여된 수행이 주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관건이다. 최근 여러 학문 영역에서 이론적·실천적 관심의 구심점인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인간의 독보적 인지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뇌신경 기관을 모의(simulation)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통해 다각적이고 다면적인 인지 수행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문학적 인지 수행을 구현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이다.

순차적이고 인과적인 논리 구조에 대한 인식에 국한되지 않은, 병렬적이고 확산적인 인지 공정을 인공의 기관을 통해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이다. 그만큼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인지 역량을 구비한 지능을 모의하는지 여하에 주목할 만하다. 문학에 관한 연구의 거점이 이러한 현황에 부응할 여지가 커진 셈이다. 특히 사람들 일반의 인지적 수행을 모델화하는 데 직결되는 대중적 미디어 장르의 공역을 이루는 ‘서사’에 관여된 인지 공정이 관심사로 급부상한 데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현황을 염두에 두고, 인지 과학과 뇌·신경 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전되는 ‘인지 플러스 서사’에 관여된 여러 논의들의 계보를 정리하고 이론과 실천 양방향에서 진전되는 연구 현황을 조망함으로써, 특히 인공지능 분야와 제휴할 여지가 많은 인지 서사론(cognitive narratology)에 대해 폭넓은 시야로 전망해 봄 직하다.

사람들이 세계를 인지하는 공정은 참으로 경이롭다. 이는 단순히 인상적인 언변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최신의 뇌신경 과학을 비롯한 인지 이론에서 논의의 단서로 하는 얘기다. 다른 생물종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인간의 인지 능력 발달에 문학이 상당히 기여해 왔다는 점도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서사는 감성을 교류하는 교감 경로이자, 경험을 거래하는

인생 시장이며, 생각을 견고트는 경연 무대로서, 인간 수행의 전역에서 유효한 방편으로 채용되어 왔다. 인간은 서사를 통해 마음의 여지를 키워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위무하며 공동의 수행을 독려하거나 문제 상황을 헤쳐 나갈 힘을 얻는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처방의 단서를 얻는 것도 서사를 통한 인지 수행의 중요한 지점이다. 인간 발달 단계에서 사회·문화의 일원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전인적 교양을 학습하는 교재에 상응하는 동화책부터, 오늘날 미분화된 지식 정보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서사물에 이르기까지, 진전된 인지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데 서사의 동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선별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해석의 모형을 제시할 방안을 모색할 여지가 넓어진다.

인간의 독보적인 인지 능력은 뇌신경 기관의 병렬 처리 공정에 기반한다. 고차원의 인지 수행은 시간 순차적인 의식의 흐름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공간 구성적인 개념 편성의 방식에 기반하여 진전된다. 이러한 인지적 병렬 처리에 관여된 개념 도식의 서고(라이브러리, library)를 재편하고 운용하는 원리는 인공지능이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처리하는 공정의 모형에 적용됨으로써 생성형 모델로 비약하는 결정적 거점이 된다. 일상적 의사소통에서 구사되는 자연어만으로 학습하기 어려운, 다차원으로 구사되는 언어 역학적인 데이터로서 서사 텍스트에 주목하는 것은 수순이다. 하나의 이야깃거리(story)가 다양한 양태의 구성(plot)으로 파생되고 다채로운 담론(discourse) 양상으로 확산되면서 의미와 가치의 여지를 다각화하는 서사적 공정을 모델링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생성적 인지 공정의 주요 정향으로 설정되고 있다. 인지 서사론의 지향이 이러한 정향과 맞물려야 하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살펴 이론적 전환의 전망을 궁리할 필요가 있다.¹⁾

1) 이 글은 서사론의 인지론적 전환을 모색하는 시론적 연구이다. 인지 과학과 뇌신경 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사 이론의 방법적 개념 계열을 재편하고자 한다. '인지 플러스 서

II. 인지 플러스 서사, 개념 계열의 사상

‘인지 플러스 서사’는 인지적 창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꼽히는 서사적 수행의 여러 국면들을 예시하여 조건과 변수에 따라 변모된 서사 장르의 현황을 해석하는 방법적 개념망을 지을 단서를 얻고자 하는 시론적 표제이다. 이에 관여된 논항들을 편성하는 모두(冒頭)의 절차는 연관된 개념 계열을 엮어 구성하는 사상(寫像, mapping)을 통해 이를 수 있다. 인지 이론과 서사 이론의 주요 개념을 대응시켜 둘을 융합할 수 있는 개념 계열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지와 서사의 함수를 구할 때 기본적인 사상의 회로를 구하는 대응항의 상수를 설정할 수 있다. 우선, 인지 이론의 최일선에 제기되는 ‘인지 도식(cognitive schema)’에 대해 서사의 제재 층위에 관여된 개념 술어를 대응시켜 그 요체를 정리하는 장을 시작으로 하여 인지에 관한 개념과 서사에 관한 개념이 대응된 항을 제시해 봄 직하다.

서사의 기저 요소인 파블라(fabula)는 명시적인 표지로써 실제적 외양이 가시화되기 이전의 추상에 상응하는 양태로서,²⁾ 인지의 기저 요소인 개념 도식과 호응 관계에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파블라는 서사적 인지의 개념 도식 요소이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리들이 술한데, 이를 담론 층위로 표출하여 실제 이야기가 오가면서 일단락되는 서사적 인지 공정에 부쳐질 수 있는 이야기 편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술한 이야기 편린들을 일정한 계열에 투사하여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화 수준은 서사적 인지 공정에도 공히 적용된다. 이러한 공정의 바탕은 개별적인 영역

사’라는 표제 아래, 인지 이론의 핵심 개념들을 서사 이론의 개념들과 대응시키는 사상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각 개념 계열 사상의 양상과 방법을 적용한 해석의 구체적 성과를 단편 논문인 이 글에 다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몇몇 논항에 대해서는 실제 해석 사례를 통해 방법적 개념의 가능성을 타진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어서, 그 서지를 주석에서 밝히는 수준에서, 이글의 한계에 대한 비판을 비껴가려 한다.

2) Patrick O’Neill (1994), *Fictions of Discourse*, Toronto UP., pp. 19~21 참조. 오닐의 이 책은 서사의 층위에 관한 개념 계열을 정리하여 도표화하여 제시하는 한편 각 층위의 개념적 자질에 대해 적합한 시야를 보여 준다.

에서 가시적 차원들로써가 아니라, 의사소통 성원들로 이루어진 공동의 담론 영역에서 두루 용인될 일반적인 약호(code)를 이루는 차원들로써 이루어진다. 이야기가 의사소통에 부쳐져 이야기의 대상이 점차 가시화되어 가는 수순[storyline]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 이전에 형성된 이야깃거리의 더미가 구조화된 개념 도식을 통해 계열에 투사되면서 서사의 진전을 가속하는 동력원이 발전한다고 해도 좋다. ‘인지 도식과 서사적 파블라’ 사상 함수가 성립할 수 있는 맥락이 이처럼 형성된다.

서사적 인지 도식의 계열을 편성하여 이룬 인지 서고(library)가 구축되고 확장 재편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추상 층위의 서사적 파블라가 스토리 층위로 가시화되는 국면에서 서사적 제재와 주제의 층위가 차츰 형성된다. 이야기의 최소 단위인 모티프(Leit-Motiv)에 대응되는 제재 층위는, 이야기의 구체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국면이어서 추상인 파블라에 비해 표층화된 면이 더하지만, 일정한 양태의 스토리 국면을 통해 드러나는 주제 국면에 비해 추상성이 더하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는 인지 회로 거개가 모티프 층위에서 작동한다. 좋은 이야깃거리를 찾아서 최적의 이야기선(storyline)을 안출하려는 일련의 인지 수행이 이에 관여된다.

같은 이야기라고 해서 다 같은 이야기는 아니다. 서사의 파블라가 스토리로 가시화됨으로써, 이야기를 지어 나누면서 일상에 거리를 두기 위해 별이는 서사적 의사소통의 국면들이 펼쳐지기 위한 서막이 열린다. 추상의 영역에 잠재된 양태의 이야기 심상[image schemal]은 이야깃거리로서 모습을 드러내고, 같은 제재라도 다른 양상의 구성과 담론 층위로 이관되어 다채로운 이야기가 회자되는 서사적 거래의 장을 벌인다. 서사적 인지 서고에 계열화되어 정돈된 이야기의 인지 도식들은 이야기를 짓고자 하는 구도에 맞추어 이야깃거리로 변환되어 채용됨으로써 최적의 구성을 통해 재편되는 공정이 이어질 수 있다. 서사적 인지 도식의 서고에서 서사의 주제를 발굴하는 일이 서사적 인지 공정상 가시적인 수행이 발생하는 거점이다. 관건은 단순히 주제 목록을 나열하거나 유형화하는 데 그치지 않

고, 이를 인지 도식의 계열로 환산하는 절차와 방법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바탕을 공고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소설의 주제론에 관한 논의가 서사적 인지 서고 분류에 관한 논의와 어우러져, 서사적 인지 공정을 논하는 절차의 모두(冒頭)가 될 논향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인지 서고와 서사의 주제’ 사상 함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같은 이야기라고 해서 다 같은 이야기는 아니다. 같은 제재나 주제에 엮이는 이야기라도 어떻게 구성하는지 여하에 따라 다른 이야기의 양태와 의미로 설계될 수 있다. 서사의 구성은 이야깃거리의 다채로운 형용과 의미 가치를 조율하는 인지 모듈(cognitive module)에 대응된다. 가능한 한 인지 공정에서 참조항(reference)으로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듈(module) 형태의 배열이 이로울 텐데, 서사의 구성을 일정하게 구조화된 양태로 계열화하려는 모색이 이와 연관된다. 흔히 스토리에 대해 플롯 층위를 상정하고 무한에 가까운 이야기를 구조 개념 층위로 환원하는 일이 이런 맥락에 맞닿는다. 이야기의 가치는 단순히 이야깃거리의 좋고 나쁨에서 결정되지 않고 구성을 어떻게 하여 최적의 의미망을 지을 단초를 세우는지 여하에 달려 있다는 혜안이, 서사적 인지 회로의 모듈을 설계하는 일이 긴요하다는 생각을 추동한다. 새로운 구성을 생성하는 일 못지않게, 집적된 서사 모듈을 채택하여 최적의 활용 공식을 산출하는 일 또한 긴요하다.

이러한 작업 수행 경로는 기존의 구조주의 방법론에서 주로 적용되는 방식이어서 이미 익숙하다. 개념 도식의 계열을 구성하고 인지 서고를 구축함으로써, 적절한 개념 도식을 취사하여 모듈 회로에 산입한 최적의 산출치를 얻으려는 방법적 진전이 가능해진다. 서사적 구조화 방법이 인지 수행의 최적화된 경로를 얻으려는 방법에서 파생된다는 논리적 수순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방법적 모색을 통해 서사적 인지 공정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경로를 추산할 수 있는 것이다. ‘인지 회로와 서사의 구성’ 사상 함수가 이를 수렴한다.

인지 모듈의 회로가 최적화되어 텍스트가 일단락되고 그 구동이 원활할

때 최적의 의미 효과가 산출될 수 있다. 잘 구동된 텍스트라야 해석적 인지 수행이 활성화될 여지가 생성된다. 서사의 담론 층위는 단순히 표현 표층의 언어 표지들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반응을 부르는 의사소통 공정에 부쳐지는 언어 수행 전역에 걸친 효력을 아우르는 개념 층위이다. 집적된 인지 회로의 연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사적 인지 공정이 서사 담론에 관여된 방법적 개념을 이룬다. 이러한 양상으로 서사 이론의 방법적 개념 계열을 인지 이론의 방법적 개념 계열에 대응시켜 변환함으로써 이론적 전환을 모색하는 일이 요구되는 것이다.

서사적 수행은 인지 활동의 일환이다. 삶의 대소사를 이야기로 엮고 풀며 삶의 예지를 얻는 일상적인 서사 수행에서부터, 가상의 허구로 지은 이야기 세계에 다난한 삶의 국면을 투사하는 서사 수행에 이르기까지, 모종의 인지적 창발을 이루는 공정이 진전된다. 삶의 장 곳곳에서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야기는 원활하면서도 남다른 담론적 효력이 긴요한 인지 수행의 방편이다. 이야깃거리를 잘 고르고 잘 짜인 구성을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론의 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로에 최적화한 미디어 도구를 적용하는 것이 서사적 인지 공정을 수월하게 하는 관건이다. 혁신적인 디지털 네트워크에 접속된 미디어 장치들의 역할은 비단 공학 기술의 발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한 공학 기술의 활용 영역을 확장하고 더 진전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인지 역량의 창발적 진전과 맞물려 있다.

서사적 의사소통을 더 잘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미디어 도구를 요청하는 것은 적응적 인지 수행의 순발력에 관여되는 신경 기능과도 맞물린다. 수용된 데이터를 초단시간에 병렬 처리하는 뇌신경 기관의 작용은, 무한에 가까운 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인간급 역량을 발전하는 기제이다. 서사적 거래의 장에 등장하는 유력한 미디어 도구는 그 자체로서 의미치가 주어지는 실체적 대상으로 소용되지 아니하고, 그 말뜻 그대로 의미를 증개하는 촉매에 상응하는 기능 단위로서만 제값이 생긴다. 촉매의 작용 양상에 따른 변환의 결과로 드러나는 텍스트 양태가 다른 것이 별스러울

수 없으니, 외양의 차이를 구별하여 그 연장을 분석하고 가치를 변별하는데 치우칠 일은 아니다. 대신 각각의 양태에 걸맞은 담론적 효력의 양상을 분석하는 데 관심하는 편이 적절하다. ‘인지 공정과 서사의 담론’ 사상 함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서사 장르의 종이 분화되는 양상은 미디어 도구가 언어로만 국한되던 전시대의 기술 상황과 지금의 현황이 사뭇 달라진 결과로 드러났다. 서사 장르종의 재편에 따라 서사적 인지 수행의 위상 변환에 주목할 여지가 빚어진 터이다. 인지 공정의 단락들이 이어져 일정한 인지 수행의 위상이 이루어지고 위상이 변환되는 국면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서사 장르의 변환 국면에 대응시켜 볼 여지가 생긴 것이다. 오늘날 서사의 장르종들 사이를 가로지르며 이루어지는 서사적 인지 수행의 다각적인 양상을 이러한 맥락에 두고서 탐색해야 옳다. 단순히 미디어 도구 변환의 표층에 시선이 머문 채 실증적 작업을 하는 것은 당찮다. 서사적 인지 공정에 관한 개념 계열로서 ‘인지적 위상 변환과 서사의 장르’ 사상 함수의 해를 찾는 논의의 방법론을 구성하려고 궁리해야 한다.

담론 층위로 이관된 서사적 인지 수행에 관한 논의의 단서는 ‘사회적 인지(social cognition)’에 관여된 개념 계열의 도움에 힘입는다. 인간의 의사소통 수행은 사회적 인지 수행에 관한 개념 없이 성립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기 삶의 영역은 물론 타인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다사다난한 삶의 경험을 이야기로써 엮고 풀며 소통하는 일에 곧잘 참여한다. 자기 삶을 다른 이들의 삶에 되비추어 성찰의 계기를 얻기도 하고 타인의 삶의 방식을 모방하여 제 삶의 진전을 꾀하기도 한다. 남의 감정이나 생각을 살펴 순조로운 사회적 관계를 이루고 지속하도록 애쓴다.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 삶의 어떤 부분을 양보하기도 하고 감정을 조율해 가며 정서적 회심을 도모하곤 한다. 남 눈치를 살피고 체면을 차리고 남을 염려하고 배려하는 식 인간 행동의 열개가 사회적 뇌를 구동한 결과들이다.³⁾

3) Susan T. Fiske (2020), *Social Cognition*, Sage Publications Ltd.(Kindle edition),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가치 척도라 할 수 있는 공유와 공생이 사회적 인지의 정향이다. 이야기가 사회적 인지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면에서 사회적 인지와 서사적 인지의 개념적 함수를 산술해야 하는 요구가 힘을 얻는다. 이를 연산할 방법을 세우는 것은 서사 이론을 인지 이론의 개념 계열로 변환하는 논의 과정에서 비중이 실로 큼직하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짓고 나누어 소통하는 일련의 일이 자고로 지속되어 온 연유와 연관된 까닭이다. ‘사회 인지와 서사의 소통’ 사상 함수로 이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나눈다고들 한다. 마음을 터 놓고 이야기하고자도 하며, 제 이야기가 아닌 양 이야기로써 마음을 투사하여 사연을 털어 놓기도 한다. 소설을 읽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서는 마음을 고쳐 먹는 경우가 있으며 마음을 다잡아 의지를 다지도록 권면하면서 어떤 소설이나 영화·드라마를 보라고 권하는 사례가 적잖다. 이런 면에서 서사적 의사소통이 마음에 관여된 현상인 경우가 다반사임을 알 수 있다.

인지 수행을 통해 편성되고 인지 수행의 바탕이 되는 ‘마음’은 육체와 절연된 심신이원론적 ‘정신’ 개념과 다르다.⁴⁾ 뇌신경 기관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인지 수행의 총화에 상응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서 눈에 띄는 실체가 아니지만 인지를 가능하게 하는 분명한 바탕이다. 이에 대해 인지 이론에서는 ‘마음 곧 공간’이라는 등식을 통해 설명한다.⁵⁾ 이는 서사를 통해 구성되는, 실체 없는 가상이지만 분명히 작용하는 실재에 상응하는 개념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관해 다룰 ‘마음 공간과 서사의 가상실재’ 사상 함수는 인지와 서사의 융합 개념으로 개념 계열을 구성한 기본 논의를, 방법론을 모색하는 확장된 논의에 잇는 역할을 할 것이다.

pp. 22~26 참조.

4) 뇌신경 과학의 논의에 따르면, 감성과 인지 사이에 방벽선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기존의 심신이원론에서 비롯한 이성과 감정, 의식과 감각 등을 구분하여 전제로 삼은 논의의 결과가 무색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Stanislas Dehaene (2014), *Consciousness and the Brain*, Penguin Books(Kindle edition), pp. 31~32 참조.

5) Gilles Fauconnier and Mark Turner (2002), *The Way We Think*, Basic Books, p. 102.

III. 인지 플러스 서사, 방법적 변환의 설계

서사의 해석에 소용될 만한 인지 이론의 방법적 개념을 재구성하여 서사 이론의 방법적 함수를 설계할 때 인지 코그(cog)에 관한 개념 계열을 서사 텍스트의 구동에 관한 개념 계열로 환산하는 법을 우선 궁리해 볼 만하다. 언어학자로서 인지 이론의 성립에 크게 기여한 레이코프(G. Lakoff)가 제안한 인지 코그 가설(cog hypothesis)⁶⁾은, 인지 도식이 단순한 형식으로 대입되는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cog)가 맞물려 작동하듯이 진전된다는 데 착안한 개념을 제안한다. 이미지(image) 도식, 동역학(motor) 도식, 위상(phase) 도식 등, 인지 도식 삼 항을 전제로 인지의 톱니바퀴가 물리면서 작동하는 인지 공정의 역동성을 강조한 셈인데,⁷⁾ 이를 서사적 인지 코그로 변환하여 적용함으로써 서사적 의미의 생성과 수용의 역학적 과정을 분석하는 데 소용될 만한 방법적 개념을 얻음 직하다. ‘인지 코그의 서사적 구동’을 표제로 한 서사 해석의 방법적 전환을 꾀함 직한 것이다.⁸⁾

인간의 압도적 인지 능력은 뇌신경 기관의 병렬 처리 공정에 기인한다.⁹⁾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감각이라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서야 이루어질 수 있다. 가령 바라보는 대상 자체에 관한 정보만이 아니라 배경을 이루는 여러 대상들에 관한 정보가 같이 수용된다. 그 정보의 날 날을 따지자면 처리할 데이터의 양이 상당하다. 이를 눈에 보이는 순서 그대로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면 보려는 대상에 대한 지각이 불가능한 상황

6) George Lakoff, “The Neuroscience of Form in Art”, Mark Turner (ed.), *The Artful Mind*, Oxford UP., 2006, p. 161.

7) Mark Turner (2006), pp. 161~164 참조.

8) 서사적 인지 코그의 방법적 개념으로서의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 몇몇 사례를 통해 그 단서를 타진한 바 있다. 「허구적 문화 객체의 서사적 인지 공정 — 「석화춘」의 인지 코그(cog) 분석을 단서로 한 시론」(현대문화이론연구, 2024), 「비발화적 감성의 서사적 인지 공정」(감성연구, 2017), 「『천변풍경』의 서사공간과 인지소」(구보학보, 2014) 등이 그것이다.

9) Paul B. Armstrong (2013), *How Literature Plays with the Brain: The Neuroscience of Reading and Art*, Jones Hopkins UP., p. 72 참조.

조차 빚어질 수 있다. 그런데 뇌신경 기관 등 인지 공정에 관여된 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식은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며 그도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낱낱의 분석을 통해 일일이 개념 도식들에 대응시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병렬 처리 공정이 인지 수행의 한 영역인 서사의 인지에서 쓰일 것은 자명하다. 다만 자명해 보이는 그 공정을 분석적으로 역산(逆算)하는 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서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병렬 처리 공정에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병렬 처리 공정의 서사적 양상’을 표제로 하여, 이야기를 통해 인지적 진전을 이루어 가는 수행에 작동하는 병렬 처리 공정에 관여된 방법론을 설계해 보직하다.

인간의 인지 수행의 탁월한 면은 마음에 관여된 수행을 진전시킬 수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마음읽기(mindreading)¹⁰⁾는 대상이나 현상의 이면과 심연을 인지하는 수행에 관여된 방법적 개념으로서, 인간의 인지적 창발을 추동하는 주요 동력원이다. 표층으로 드러난 면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두터운 의미의 층을 시추할 수 있는 것은, 인지의 역동 가능성을 드높여 마음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더할 수 있는 창발적 인지(emergent cognition)¹¹⁾ 수행의 바탕이 된다. 마음읽기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회적 인지에 관련된 방법적 개념이어서, 마음을 여러 국면에서 소통하는 사회적 수행의 면면에서 작동하는 인지 코그의 작동 기제를 살필 수 있는 접점이기도 하다. 이야기를 통해 현상과 세계를 이해하고 이를 자기화하는 서사적 수행이 이에 대응된다.

서사적 공정에 회부된 이야기는 낱 재료 그대로나 표층에 국한된 사상(事象)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일정한 의미와 가치에 투사한 이미지-심산(imagination)을 거쳐 변환된 양태로 제시된다.¹²⁾ 몸의 감각 기관을 통

10) 마음읽기는 정신화(mentalizing)에 상응하는 술어이며 마음의 이론(theory of mind)이라는 모호한 술어를 대체하는 말이다. C., Comer and A. Taggart (2021), *Brain, Mind, and the Narrative Imagination*, Bloomsbury Publishing(Kindle edition), p. 51.

11) Gilles Fauconnier and Mark Turner (2002), p. 29.

12) 서사적 이미지-심산(narrative imagination)은 일견 작가가 작품을 통해 관념이나 감

해 수용된 대상이나 현상의 정보는 이미지 형태로 변환되고 개념화되어 개념 도식의 서고에 저장된 기억 정보에 사상(寫像)되면서 의미를 산출할 수 있는 가능태가 된다. 이야기는 그 가능태를 실현하는 매개적 수단에 해당한다. 좋은 이야깃거리를 최적의 구성으로써 이미지-심산을 활성화하여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여 이루는 마음 공간의 확산 경로는 마음읽기를 수월하게 하는 인지적 방안으로서 훌륭하다. 마음읽기의 방법적 개념을 서사적 이미지-심산에 대응시켜 봄 직한 방법적 가능성의 실현 확률이 이로써 더해진다. ‘마음읽기의 서사적 이미지-심산’에 관여된 해석 방법론의 가설과 분석적 실례를 진전시킬 타당성이 크다.

인지 활동이 뇌신경의 작용으로써 일어나고 활성화되는 것에 비견하게, 사회적 인지나 마음읽기와 같은 인지 수행은 사회적 뇌(social brain)¹³⁾의 작용을 개념적 상대항으로 상정하게 한다. 문화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된 문화적 코드(cultural codes)는 문화적 층위의 인지 도식을 형성하게 하는 동인이다. 특히 감성에 관여된 인지 도식의 공유는 공감대나 연대감 등을 형성하여 문화적 차원에서 공동의 인지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 서사의 동력이 크게 작용한다. ‘사회적 뇌의 서사적 감성 회로’는 이러한 문화적 인지의 주요 면면을 논하는 장을 편성할 시금석이다.

관건은 이성 대 감성의 양항 대립적 이분법적 실체를 상정하는 틀을 해체하고, 감성에 관여된 여러 수행적 단말에 얽히고설킨 다면적 감성 양태

정 상태 또는 그 의미를 개발하는 창의적 공정을 일컫는가 하면, 읽거나 듣기를 통해 그러한 의미를 자기화하여 내면의 ‘세계들’을 구성하는 공정을 일컫는다. 인지 심리학과 신경 과학 분야에서 증명한 바에 따르면 이미지-심산은 애초에 구성적이며 창의적인 인지 수행의 방식이다. 이야기의 인물과 배경을 설정하고 사건의 연대기를 구성하는가 하면 이를 솜씨 좋게 써서 내놓고 의사소통에 부쳐 독자(청자)들이 이야기에 온전히 연루되기라도 한 듯 반응하기까지, 이야기-세계를 창출하면서 서사에 참여하는 방식은 구성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입증되는 것이다. 벌어짐 직한 일(*could happen*)에 대한 창발적 사유를 일으키는 서사의 공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Angus Fletcher and Mike Benveniste (2025), *Narrative Creativity: An Introduction to How and Why*, Cambridge UP.(Kindle edition), loc. 428 참조). 이 과정에서 은유적 개념 사상이 중요한 기제로 떠오르는데, 삶에 편재한 창발적 개념 사상의 방식인 은유는 이미지-심산과 직결된 인지 방편이다.

13) Comer and Taggart (2021), p. 50.

를 가로지르는 방법적 개념 계열을 설계하려는 모색이다. 감정(emotion)이든 느낌(feeling)이든 혹은 감각(sensation)이든 인간의 감각 기관을 통해 수용되어 인지 작용에 이관되는 요소들이 이성이나 논리적 의식 작용과 다른, 그도 정반대 영역에서 진행되는 대립적 실체 영역의 향이 아니라는데 주목해야 옳다. 정서적 영향(affection)¹⁴⁾에 관한 전환적 생각의 단서들은 감정과 의식의 이분법적 사고 틀로 환원할 수 없는 인지 수행의 한 방편에 관한 소중한 실마리이다. 정서는 뇌신경의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마음의 회로에 부쳐질 때 이루어지는 인지 작용의 중요한 국면이며 ‘교감(empathy)’에 비근한 술어로서 주된 의미망의 경위를 이룬다. ‘사회적 뇌’가 이를 구심으로 하여 개념적 가치를 얻으며, 이야기는 서사적 기제로서 부과된 기능적 가치가 파생되는 거점이 된다.¹⁵⁾

한편, 이야기를 통한 의사소통의 인지 수행이 중요한 것은 인지 공정에서 상수로 대입되는 ‘기억(memory)’을 강화하는 데 이야기가 크게 기여하는 까닭이다. 일단락된 인지 수행의 결과는 기억에 이관되고 다음 인지 수행에 쓰일 개념 도식으로 변환되어 인지 서고에 보관된다. 기억을 굳히고 양생하는 ‘기억 응고화’는 인지 역량을 드높이는 주요 기전(mechanism)이다. 그런데 기억의 기전에 문제가 생겨 온전한 마음의 상태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외상’으로 번역되는 트라우마(Trauma)는 기억 공정을 교란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며 이로써 빚어지는 스트레스 장애

14) 이를 ‘정동(情動)’이라 번역하여 혁신적인 개념향인 양 쓰는 최근의 추세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런데 ‘정동’은 급격히 일어나는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서 온전한 사고를 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적 상태를 일컫는 개념 술어로 고착된 채로 레저시 심리학에서 선점한 번역어이다. 이를 쓰는 것은 방법적 개념 계열의 전환을 모색하는 데에서 용인할 수 없다. 정서가 정지된 채 맴돌면서 어떤 고착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한 과정에서 감정이 영향을 끼치며 담론적 효력을 발하여 끼치는 정서에 관한 개념으로 변별하는 편이 타당하다는 것이 뇌신경 과학에 힘입은 인지 이론의 개념적 거점이다. Antonio Damasio (2018), *The Strange Order of Things: Life, Feeling, and the Making of Cultures*, Knopf Doubleday Publishing Group(Kindle Edition), pp. 241~242 참조.

15) 「문화 공간의 서사 공간 변환 공정 — 『혼불』의 인지 공정을 단서로 한 시론」(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23), 「감성의 서사 공정과 문화적 인지 도식」(호남문화연구, 2018) 등은 이와 관련된 서사 해석의 가능성을 타진한 글이다.

(PTSD)는 심각한 증후군으로 꼽힌다. 이에 대한 처치 가운데 기억 재응고화(reconsolidation of memory)는 신경-서사 요법(neuro-narrative therapy)의 주요 단서로서, 인지와 서사의 관여적 국면을 살피는 거점이다.¹⁶⁾ ‘기억 재응고화 기전의 신경-서사 요법’은 이에 관한 방법을 모색하는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다.¹⁷⁾

이야기는 기억에 관한 인지 공정을 구동하기도 하지만,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새롭거나 낯선 것을 ‘짓는’ 방식을 기조로 하는 창발적 인지 공정의 구동을 돕는 수단이기도 하다.¹⁸⁾ 창발적 인지와 서사적 창의가 맞물릴 수 있는 여지는 다분하며 서사와 인지의 관계를 물을 때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 조합이기까지 하다. ‘창발적 인지의 서사적 창의’를 논하는 장을 통해, 인간의 창의적 수행에 관해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에 관여된 방법적 개념을 계열화하고 인지 공정의 역학에서 파생되는 논항들에 대한 해를 구하는 식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것은 인지 코그의 구동을 기점으로 인간급 인지의 창발을 부르는 동력의 작용 양상을 이해하는 수순이다. 이러한 방법적 절차는 서사적 인지에 관여된 방법적 개념에도 대응되어야 옳은데, 서사적 인지에 특화된(혹은 하위 범주화된) 몇 가지 변환 함수를 제안한 것이 위와 같은데, 다음과 같이 방법론의 계열을 정돈해 볼 수 있다.

서사적 인지 공정에서 구동되는 서사적 인지 코그는 이야깃거리에서 서사 담론에 걸친 서사 분석의 방법론을 인지 이론 차원들로 변환하는 설계

16) Jeffrey Zimmerman (2018), *Neuro-Narrative Therapy*, W. W. Norton & Company(Kindle edition), p. 140, p.171.

17) 「기억의 재응고화와 역사적 외상의 서사적 시멘트 — ‘오월 광주’ 서사의 치유 기전에 관하여」(호남학, 2021), 「‘역사±소설’의 인지 공정」(비평문학, 2019) 등은 이와 관련된 해석의 방법을 모색한 글이다.

18) 인간급 마음(human minds)이 술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선행 지식을 상당히 요구하며, 그러한 진전된 발견들을 통해 선행 지식은 특정 정보 영역들에 대한 새로운 기대 형태를 얻게 된다는 점이 실험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Pascal Boyer (2018), *Minds Make Societies: How Cognition Explains the World Humans Create*, Yale University Press(Kindle Edition), loc., 1196-1198 참조.

를 돕는다. 복잡다단하게 직조된 이야기 텍스트를 수용하여 모종의 의미 망에 투사할 수 있는 서사 해석의 복합 공정은 선조적 수용 형태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병렬 처리 원리에 의해 진행된다. 텍스트 표층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공정도 그리하며 해석에 동원되는 이론적 준거와 의미를 조망하는 통찰력 있는 사유의 공정 등에서 병렬 처리 회로의 기제가 작동하는 양상을 논의할 여지가 넓다. 이미지-심산을 매개로 서사적 의사소통에 나서는 이들 공동의 의미 해석 코드에 관한 방법론은 마음읽기에 수렴되는 인지 수행의 양태를 논의선상에 올리게 한다. 감성에 관여된 인지 수행의 면면이 이야기로써 활성화되는 공정은 사회적 인지의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뇌에 관한 논의와 접점이 있다. 정서적 영향이 각별한 가치를 발산하는 서사적 인지 공정의 동력을 측량할 척도를 준비할 여지가 크다. 이러한 수순에서 이야기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확장될 필요가 생긴다. 신경-서사 요법에 상응하는 서사적 인지 공정을 논급하기 위해 기억 재응고화 기전을 방법적 개념으로 도입할 만하며, 인지적 창발에 대응되는 서사적 창의에 관한 방법적 개념의 안출도 요구된다.¹⁹⁾ 이러한 설계를 바탕으로 텍스트들을 논의한 결실들을 정돈하여 인지 서고를 키울 수 있음 직하다.

IV. 인지 플러스 서사, 실험 모델의 청사진

‘인지 서사학’이라고 쉬이 얘기하지만 인지 이론과 서사 이론의 접점을 모색하는 일이 논점에 따라서는 그리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인지 과학에서 서사에 주목하고 실제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제후를 모색하는 일이 적잖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관련 문헌을 읽다 보면 공동 연구가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은 물론 결정적인 난관에 봉착하는 사례

19) Dehaene (2014), pp. 13~14 참조.

도 있는 모양이다. 그만큼 ‘인지 플러스 서사’는 확정된 이론의 영역보다는 실험을 설계하고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영역이 더한 듯하다.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착안한 실험과 같은 실천적 모색을 할 필요가 커진다.

인지에 동원되는 미디어(media)에 따라 인지 수행의 양상이 달라지는 면이 우선 주목을 끈다. 같은 이야기라도 이를 의사소통에 부치는 과정에 쓰인 미디어의 차이에 따라 효과는 물론 의미나 가치 등 그 결과치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이러한 관심을 촉발한다. 미디어의 변환에 따라 서사를 수용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여 실제 양상이 변환되는 국면을 시추해 볼 만하다.

미디어는 의사를 전하여 전언의 효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취사하여 적용하는 수단이다. 이야기를 전하고 나누는 데 쓰이는 미디어가 말이나 글에 한정되었을 때의 서사적 의사소통에 관여된 인지 공정의 양상과, 디지털 기술에 힘입은 미디어 단말을 수단으로 이야기가 거래되면서 작동할 인지 공정의 양상이 여일하기 어렵다.²⁰⁾ 현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경우 사뭇 다른 국면이 펼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표층상 차이를 유발하는 차원 요소들이 실제 인지 공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낳는지 여하를 살피기 위해, 구조화된 샘플을 대상으로 실험적 모의를 설계하는 방법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해석 층위에 이관된 마땅한 일이다. 모의 상황에서 해를 산술할 식을 세우고 여러 연산을 시도할 여지가 다분한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든 관건은 미디어를 실체적 대상으로 착각하지 않고 인지 수행의 원활한 공정을 촉매하는 수단으로 보는 시선이다. 서사적 인지 공정에서 미디어 수단의 역할이 적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자체로서 추구하고 달성해야 하는 목표에 상응하는 위계적 가치가 부여된 기성의 실체라고 전제하여서는 곤란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인지와 서사의 함수를 산술할 식을 타진하는 실험은 상당히 급진적인

20) 미디어는 그 자체의 연장만으로 성립하는 실체가 아니라 어떤 작용을 통해 효력을 발생하는 담론적 도구이자 기능적 촉매이다. 따라서 미디어 역할(media role)에 관한 분석 면에서 유효한 값을 도출하여야 마땅하다. 장일구 (2023), 『문학 더하기』, 역락, 249~252쪽 참조.

기획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설계와 실행 방안의 수립과 적용을 고려할 때 진척이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는 일이다. 언어에 비해 영상이 더 일차적인 감각을 자극함으로써 더 즉각적인 반응을 부르며 더 수월하게 수용된다고 여기기 십상이다. 이런 생각은 일견 타당하지만 시청각 기관을 통해 수용되는 감각적 소여라고 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부른다고 여기는 것은 인상적 오해에 불과할 소지가 크다. 뇌신경 기관에 이관된 시청각 데이터가 언어적 데이터에 비해 처리 공정이 단순하다는 증거는 없다. 더욱이 시각이나 청각과 같은 일차적 감각 데이터라도 뇌신경의 인지적 처리 절차를 거치는 동안 이미지 형태의 개념 도식에 사상되는 회로에 이관되는 만큼, 종내는 언어적 데이터와 다른 신속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감각적 소여는 뇌신경 공정을 거치는 동안 개념으로 환산됨으로써 느껴지고 여겨지는 식으로 생각 형태의 인지 더미로 변환된다. 서사적 미디어의 작동 기전 또한 이러한 인지 공정의 작동에서 벗어날 리 없다. 미디어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인지 공정의 위상 자체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 단말의 차이를 전제로 서사적 의사소통에 작용하는 인지 공정상 차이가 자명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그 차이가 주 미디어로 무엇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분류되는 서사 장르종들 간의 위계적 종차를 결정한다고 전제해서는 곤란하다. 각 장르종 특유의 기법적 영향 관계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예단이나 오판이 있어서는 곤란하다.²¹⁾ 가설 수준에서 차이에 관한 구도를 설정할 수 있지만 그 구도 자체만으로 서사적 인지 공정의 차이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 서사와 미디어

21) 가령 영화와 소설의 기법적 영향 관계는 흔히 알려진 것과 다르다. 그 선후 관계로 따지자면 영화 기법이 소설의 기법을 빌려오거나 참조하고 응용하여 적용한 경우가 거대하다. 한동안 몽타주 기법이나 플래시백 기법 등이 소설에서 영화의 기법이 구현되었다면 서 논급하는 사례들이 횡행하였는데, 몽타주는 소설의 담론상 편집에 관한 개념(특수한 기법이 아닌)이며 플래시백은 소설의 구성상 시간 요소에 관한 개념(이 또한 특수한 기법이 아닌)에 해당한다. 촬영한 필름 롤을 그대로 돌려 상영하는 데 머물던 영화에서 이러한 소설의 개념 원리에 착안하여 잘라 붙이기(cut & paste)하여 표현 방식의 혁신과 러닝 타임의 획기적 확장을 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영상 미디어를 주로 적용한 영화가 언어 미디어를 쓰는 소설에 비해 우월하거나 미디어 효과 면에서 압도적이라는 근거가 자명하게 주어진 적은 없다.

어에 관한 개념 계열을 인지에 관한 개념 계열에 사상하여 환산할 수 있는 최적의 실험 모델을 얻기 위해 대입할 상수와 변수의 개발이 관건이다. 감각 기관을 통해 얻은 지각 데이터를 말단의 인지 더미로 환산함으로써 일단락되는 인지 공정에 대한 뇌신경 과학의 논의를 참고하여, 미디어 효과가 서사 장르종별 인지 공정에서 유의미한 종차를 낳을지 따져 보는 것도 흥밋거리다. 다분히 현 단계로서는 설계의 밑그림 정도만 그릴 수 있을 뿐, 이에 관한 실험 모델의 개발과 실험 데이터의 축적이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 그리한다고 해서 유의미한 결과치가 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이즈음에서는 서사 이론의 인지 이론적 전환을 모색하는 시야에서 조망하는 데 한정해 두고 논의를 진전시킬 여지를 남긴다. ‘인지 매체의 변환과 서사 수용의 양상’을 주제로 한 실험을 기획하고 실연해 봄 직하다.

어느 경우든 서사적 인지 공정에서 중요한 상수는 이야기를 통해 소통하고자 하는 전언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 인자이다. 이 맥락에서 주목할 방법적 개념인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scher Zirkel)’²²⁾은 서사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이론적 거점이 되어 왔다. 이해는 선이해(Vorverständnis)를 바탕으로 가능하며 이해의 결과는 선이해의 자료로 쓰이면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바탕이 된다는 것이 그 골자다. 뇌신경 기관에서 진행되는 인지 공정이 이러한 해석학적 순환의 원리를 입증한다는 논의²³⁾를 전제로 인지 코그 가설과 마음 공간 구성에 관한 진전된 논의를 적용하여, 서사를 해석하는 인지 공정의 과학적 단서를 타진해 봄 직하다. ‘해석학적 순환의 뇌신경 과학적 단서’는 이에 관한 실험의 장을 여는 서막이 될 것이다.

해석은 의미의 공분모를 전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지 수행이다. 선이해에 주목한 해석학의 입론이 서사 이론에서 중요한 방법적 개념을 제안했고 이론의 진전에 기여해 온 것은, 공동의 인지 도식에 상응하는 사회

22) Otto Friedrich Bollnow (1982), *Studien zur Hermeneutik*, Band I, München.

23) Armstrong (2013), pp. 62~63 참조.

문화적 코드가 서사적 수행의 주된 동력인 해석적 인지 공정에 산입되어 작용하는 동역학 코그에 대응한 덕이다. 이런 맥락에서, 피쉬(S. Fish)가 제안한 ‘해석 공동체(interpretive community)’²⁴⁾는 서사 해석의 역학적 국면에 대한 인지 이론적 방향을 열어 주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서사 텍스트에 대한 해석은 온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는데, 객관성이 없다고 해서 그저 주관적인 과정과 결과라고 단언하는 것은 당찮다. 해석학에서는 해석을 상호주관성(Intersubjektivität) 수행이 일단락된 형태로 전제하는데, 해석 자체의 객관성이나 주관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보다 일정한 해석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일깨운다. 피쉬가 이러한 해석의 정향에 주목하여 해석 공동체의 구성에 관해 제안한 것은 그의 이론적 혜안을 방증한다. 독자 반응 비평의 단적이고 제한적인 난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물론 이러한 해석 공동체를 가시적인 구획 내에 실로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적용 가능한 방법적 개념이라기보다 해석의 상호주관성에 대해 추론하는 데 적용할 만한 개념 술어 정도로 한정하여 수공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최신의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석 공동체를 모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프롬프팅 구조를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그룹의 해석 공동체를 통해 서로 다른 해석의 결과를 여러 국면에서 타진해 볼 수 있는 방법적 가능성이 생겼다. 대표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들을 활용하여 ‘AI 비평 모형’을 설계하고 실제 텍스트 해석의 여러 변수를 대입하면서 이를테면 ‘AI 해석 공동체’의 가능성을 타진해 봄 직한 것이다. 인공지능의 비평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롬프팅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실험하고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상대적으로 서사 텍스트를 해석하고 비평하는 인지 공정에 대한 모델을 탐색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 단계에서 고차원의 추론이 가능한 엔진이 개발되어 쓰이고 있으며

24) Stanley Fish (1980),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The Authority of Interpretive Communities*, Harvard UP., p. 171.

앞으로 더 발전된 지능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실험 모델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 해석 공동체의 위상’에 관한 실험이 현 단계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 여하에 따라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 인지 플러스 서사의 열린 지평 정도로 조망하는 데 그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의 서사적 해석 공정에 대한 능력 수준을 측정하는 데 소용될 만한 척도를 안출하는 데 논의의 정향이 설정될 여지 또한 있다.

V. 지평

이 글은 서사 이론을 인지 이론에 사상하여 방법적 전환의 가능성을 시추하는 시론이다. 가능성이 실현될 구체적인 결실이 각 항들에 대해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쌓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어질 논의를 혼자서 감당해야 할 것은 아닐 테며 논항에 따라서는 공동 연구가 요구되기도 한다. 논의의 지평을 여는 열개로서 이 자체가 일종의 개념 도식에 상응한다고 해도 좋다. 인지 플러스 서사에 대한 함수를 다각도로 궁리한 결과의 일단이 위와 같다.

최신의 인지 이론과 서사 이론의 융합을 모색하는 일은 학문 영역 간의 문턱을 낮추어 서사 이론의 방법적 개념을 확장하는 한편 서사적 의사소통의 경로와 공정을 좀더 과학적인 시야에서 원리와 작용 양태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적 전환을 꾀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 제안한 두 영역 간 개념 계열의 사상 양상과 방법적 함수의 설계 모형이나 실험적 모델의 청사진은 관련 학문 영역 간의 공동 연구를 기획하는 경우에 공유해야 할 개념과 방법에 대한 기초 정보가 될 직하다. 각 논항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뇌신경 과학을 기초로 진전되는 인지 과학 분야의 성과를 반영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므로, 인지 과학의 기초적인 정보를 얻어 연구의 시야를 확장하는 바탕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념 융합형 방법을 모색하고 실험적 방법을 설계하는 장을 통해 학문 영역을 가로지르는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법적 모형의 구성에 대한 시사점이 제법 의미심장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구조화된 프롬프팅을 통해 ‘AI 독자들’로 하여금 서사 텍스트 해석에 관한 방법적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의 서사적 인지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할 여지가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rmstrong, Paul B. (2013), *How Literature Plays with the Brain: The Neuroscience of Reading and Art*, Jones Hopkins UP..
- Bollnow, Otto Friedrich (1982), *Studien zur Hermeneutik*, Band I, München.
- Boyer, Pascal (2018), *Minds Make Societies: How Cognition Explains the World Humans Create*, Yale UP..
- Comer, C. and Taggart, A., Brain (2021), *Mind, and the Narrative Imagination*, Bloomsbury(Kindle edition).
- Damasio, Antonio (2018), *The Strange Order of Things: Life, Feeling, and the Making of Cultures*, Doubleday Publishing Group(Kindle Edition).
- Dehaene, Stanislas (2014), *Consciousness and the Brain*, Penguin Books(Kindle edition).
- Fauconnier, Gilles and Turner, Mark (2002), *The Way We Think*, Basic Books.
- Fish, Stanley (1980),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The Authority of Interpretive Community*, Harvard UP..
- Fiske, Susan T. (2020), *Social Cognition*, Sage Publications Ltd.(Kindle edition).
- Fletcher, Angus and Benveniste, Mike (2025), *Narrative Creativity: An Introduction to How and Why*, Cambridge UP.(Kindle edition).
- O'Neill, Patrick (1994), *Fictions of Discourse: Reading Narrative Theory*, Toronto UP..
- Turner, Mark, (ed.) (2006), *The Artful Mind*, Oxford UP..
- Zimmerman, Jeffrey (2018), *Neuro-Narrative Therapy: New Possibilities for Emotion-Filled Conversations*, W. W. Norton & Company(Kindle edition).

Abstract

Blueprint for Reshaping Narrative Theory - A Cognitive-Methodological Approach

Jang, Ilg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cknowledging the significant role of narrative in human cognition and responding to contemporary developments such as the rise of generative AI, this study seeks to reformulate narrative theory by drawing upon the achievements of cognitive science and neuroscience.

The core methodology proposed is to establish a mapping function by correlating cognitive conceptual terms—such as schema, library, module, and processing—with narrative conceptual terms, ranging from subject matter (or themes) to discourse. Furthermore, it is appropriate to design methods like the narrative cog, the narrative mind-reading, and neuro-narrative therapy, while also presenting a blueprint for experimental models such as an *AI interpretive community*.

Through this research I seek to expand the scope of narrative theory,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a methodological shift that allows for the analysis of the narrative communication processing from a scientific perspective, and open up new possibilities for narrative studies in conjunction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Keywords: cognitive narratology, cognitive science, neuroscience, generative AI, conceptual mapping, cognitive schema, cognitive library, cognitive module, cognitive processing, social cognition, interpretive community

논문 투고일: 2025년 08월 29일
심사 완료일: 2025년 10월 01일
게재 확정일: 2025년 10월 01일